

WITH BIBLE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천 년 전 유대 베들레헬 하늘
에 홀연히 수많은 천사의 군대
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눅 2:14)

그때 베들레헬에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없어 소
나 나귀가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눕었습니다. 그 아기의 탄생을
수많은 천사가 노래한 것입니
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은 곳까지 들어 높일
아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
뻐하신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
를 가져올 아기였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서 구원할 자”,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
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
기 영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
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
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
니하리라”(사 42:8)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면서 드높이
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
기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
람, 종에게 자기 영을 주어 이방
에 정의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
다(사 42:1).



예수는 이 땅에 오심으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국의 권세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압박하며 강압적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느 제국처럼 쇠하거나 낙담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전한 정의를 세우는 데까지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방인에게 참 빛을 비취주실 것이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끌어내

고 흑암 중의 백성을 감방에서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실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 소이다”**(요 17:1-2)

예수는 창세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지극히 높은 곳까지 끌어 올리셨습니다.



**3. Chair name /
Shope name / \$159**

우리에게 미친 참 평화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여 택한 자들에게 참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누구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우리의 평화, 주님의 희생

이 일을 위해 예수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흠모할 것 없이 초라하게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내세울 것 없는 동네에서 무명한 존재로 자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삶을 헌신하고 영생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에 의해 이방인 관리들의 손을 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왕이시여!”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눅 19:37-40)

